

북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1960년대 후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교육으로

김옥자(서울 압구정초등학교)

해방 후, 정권수립시기부터 기술교육을 중시했던 북한은 일제시기의 수탈경제가 남긴 후유증 극복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기술인력 확보를 필요로 했으나 현실은 극심한 기술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초급 기술기능 인력의 집중양성을 위해 나섰으며 그것은 곧바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대상자 규모의 확대와 기술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 중심의 교육개편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전쟁 후 복구사업과 여러 차례의 계획경제가 진행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북한 전역에 기술교육 효율성 중심의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소분쟁’, ‘갑산파 사건’ 등 1960년대 들어 전개된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자립경제, 자주국방정책에 따른 군수산업 중시와 함께 유일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전 국가 차원의 유일지배체제 강화 정책으로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 들어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었고, 그 결과 정권수립 후 유지해왔던 기술교육의 무게중심이 유일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으로 확연히 옮겨가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해방 후부터 시작된 기술교육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와 9년제 의무교육제의 중등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을 비교하여, 기술교육의 유일사상교육으로의 비중 이동이 확연했음을 밝혔다.

주제어: 기술인력, 단선제 기술교육체계, 유일지배체제 확립, 유일사상, 정치사상교육

1. 들어가며

일제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토대구축과 체제유지를 위한 절박함 속에 경제건설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곧바로 기술인력의 절대 부족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려야 했고, 주로 기능공 수준의 기술인력의 신속한 양성에 목적을 둔 기초기술 교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초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술 교육은 전후 복구기간이었던 1950년대 중·후반에도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인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로 개편되었다. 이어 1960년대 중·소 갈등, 중·인 국경분쟁, 쿠바사태 등의 북한을 둘러싸고 진행된 대외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자립경제선언, 그리고 내부의 정치적 갈등의 정리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교육체계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교육 분야에서도 정치적 요소가 이전에 비해 비중 있게 고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교육의 무게중심은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에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유일사상교육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은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 혁명가, 공산주의혁명가’를 양성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과목으로는 북한 정권 수립 초기의 ‘사회주의 교육’과 그 이후 추가된 ‘공산주의 도덕’이 있다. 둘째, 한국 전쟁 후 계속된 8월 종파사건, 갑산파 사건 등의 정치권력 투쟁에 따른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정치사상교육은 이런 유일사상교육을 의미한다. 유일사상교육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교과목을 채택하고 수업시수 비율을 확대했다. 이처럼 기

술교육에 비한 정치사상교육의 상대적 우위화는 9년제 의무교육제 시기는 물론이고 김정일 체제에서도 계속되었다.

북한 기술교육은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변화를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식민지교육 잔재 청산 및 공업화에 필요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감소와 그 공백 보전을 목적으로 한 기술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기술교육이 축소되고 대외 정치 환경 리스크 극복과 통치 권력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이 중시되어 수업시수와 과목 수의 비중이 해가 거듭될수록 두드러졌다.

북한에서 근래에도 과학기술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은 2012년의 ‘12년제 의무교육제’와 2014년 9월 5일 제13차 전국 교육일군대회에서 거듭 밝힌 ‘모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인재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시기 모두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고 그 뒤에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 이는 현재의 과학기술교육이 경제개혁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임은 명백하나, 그들의 정권을 유지시켜온 주요 교육사업의 하나였던 정치사상교육을 능가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대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으로 전환한 9년제 의무교육제를 살피는 것은 북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 및 배경을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성을 갖는다. 특히 산업 활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교육이 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에

1)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1면.

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경제계획 발전에 연계해 실시된 일련의 기술교육 개편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교육연구의 대부분이 교육과정 변천과 분석, 정치사상 교육, 남북 교육과정 비교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기술교육 관련 연구들은 극히 일부였다. 이미 연구된 결과물들도 시기별 기술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데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 북한 교육에서 기술교육이 정치사상교육으로 그 비중을 이동한 사실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기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조정아,²⁾ 김지수,³⁾ 강호제⁴⁾에 의해서였다.

조정아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기술교육을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교육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당시 노동교육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연구했다. 김지수는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소련의 종합기술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개혁안이었다고 보았으나, 기술교육이 당시의 북한 경제 상황과 학교실정에 적합하지 못해 계획과는 다르게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호제는 북한과학기술 기원을 해방 후 시작된 기술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간 핵심요소였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이 논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 기여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학 중심의 과학기술교육을 다루거나(강호제), 기술교육의 급속한 양적 발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

2)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3) 김지수, “북한 기술의무교육제 실시과정에 관한 연구-급진적 사회주의 교육개혁의 좌절과 변형”(『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6).

4)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26쪽.

용을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다루었다(조정아). 기술교육을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양적 발전 중심으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특히 소련의 종합기술교육을 적용한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북한의 경제상황과 학교 실정에 적합하지 못하여 계획과는 다르게 실시되었다고 언급한 논문은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의 부진을 기술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기술교육을 생산노동활동과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하는 데 그쳤다(김지수). 즉 위 선행 연구들은 권력투쟁과 국제정세변화, 경제생산성 저하 등으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의 기술교육이 약화되고 유일사상을 기본으로 한 정치사상교육이 기술교육보다 우위에 두게 된 교육개편 배경과 그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기술교육 발전이 과거에 비해 지체되었던 원인을 살펴보고, 전반적 9년제 의무교육에서 유일사상교육을 위한 과목과 수업시수의 비중이 확대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 교육의 중심축이 기술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으로 이동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선교육사』 4·5권과 『로동신문』, 『조선중앙연감』, 기술교육 관련 저작물 등의 북한 문헌 및 자료를 주요 연구 자료로 참고했다. 이 중 『조선중앙연감』은 매년 출간되어 기술교육 관련 통계와 그 내용을 시기별로 파악하는 데 유의미했으며, 기술교육이 정치사상교육으로 전환된 시기의 유일사상교육 교과목과 수업시수의 비중을 비교분석하는 데 유용했다.

2. 보통교육체계에서의 기술교육 발전과정

해방 후 북한에서는 문맹퇴치와 함께 식민지교육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또 턱없이 부족한 기술인력을 어떻게 길러내 공급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1946년 7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일제시기 직업교육 기관들이었던 시설들을 활용해 19개의 기술전문학교로 개교하는 것을 결의했고, 8월 17일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기술학교와 양성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⁵⁾ 같은 해 12월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학교 전 교양과 일반교육을 비롯하여 기술교육, 고등교육의 교육체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1) 식민지교육 청산과 사회주의경제 도입기(1946~1953.7)

1946년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업시설들이 많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술자 확보가 시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요인이었던 낮은 수준의 직공교육 및 단순노동자 양산에만 치중했던 식민지교육의 잔재, 또 기술천시의 전통적 사회통념과 분위기를 바꾸고, 기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⁶⁾

5)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297쪽.

6)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34쪽. 1948년 3월 28일 북조선 로동당 제2차 정당대회 <우리 당 단체들이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첫째 약점은 경제건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운영 방법이 부족한 그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 아래 1947년 ‘제1차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맞물려 시도된 교육적 노력으로는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⁷⁾ 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결정을 통한 기술교육망의 신설 확충, 그리고 기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려는 기술교육 활성화 정책들이 있었다.⁸⁾

이어 열린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5개 실업학교를 정비해 공업학교 12개교, 농업학교 14개교, 상업학교와 수산학교 각 1개교 등 28개교의 초급기술학교로 개편했고,⁹⁾ 잔여 일부 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승격시키거나 초급중학교 또는 고급중학교로 개편했다.

얼마 뒤 정부 수립과 함께 기술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결정들이 채택되었는데, 1948년 1월 교육국 내 학교 교육부를 보통교육부와 기술교육부로 분리시켰고, 교육국에 고등교육원을 설치하여 각종 기술학교와 대학들을 통합 지도하도록 했다. 기술교육 육성을 위한 수차례의 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해 1949년, 12개교의 기술전문학교를 신·증축했고, 초급기술학교 17개교, 기술전문학교 51개교를 수리했다. 이와 같은 기술교육 육성은 각급의 기술 관련 학교설립으로 그치지 않았다. 각 분야의 기술자들을 선발해 소련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낸 유학생이 1949년에만도 500여 명에 이르렀다. 1949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기술교육 대회에서는 경제건설에서 기술

7) 1947년 6월 20일 제40차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기술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제도>.

8) 1947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위원회의 제44호 <기술교육을 천시하는 사상을 없애고, 인민경제계획완수에 있어서의 기술교육의 긴급성 및 기술교육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시책을 선전 해설하는 사업을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광범히 전개 할 것>.

9) 1947년 6월 24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44호 <기술교육진흥에 관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급 기술 및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인민경제의 건설에 합치시키도록 했다. 이 시기 기술교육 학교의 주 임무는 일반지식교육을 바탕으로 생산을 위한 기본이론을 습득하게 하고 생산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다.¹⁰⁾

2)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기술교육(1953.7~1956)

1954~1956년까지 시행된 ‘인민경제 3개년 계획’은 경제를 재건하여 전쟁 전의 수준까지 회복시키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그 당시의 북한 경제 규모는 전쟁 전에 비해 공업 분야는 53%, 농업분야는 76%나 줄었다. 전쟁 후유증은 산업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숫자에서도 나타났는데, 1952년의 전체 노동자 수는 전쟁발발 전에 비해 74.2%나 줄었다.¹¹⁾ 노동인력의 급속한 감소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는 노동자의 징집을 가능한 억제시키거나, 군대 내 기술인력의 상당수를 제대하는 대로 공장으로 곧바로 보낸 것이다.¹²⁾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1953년 학제개편을 통해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조치가 인민학교 수학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사실이다. 이러한 수학기간 단축은 상급학교인 중학교 졸업시기를 1년 앞당겨 학생들의 산업현장 조기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¹³⁾

10)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32~36쪽.

11)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62쪽.

1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598쪽.

한편, 1955년 10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인민학교에 개설한 기술보습반도 전후 노동력 조기 투입을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전후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에 서도 있었다. 전후 복구사업의 기본노선을 밝힌 1953년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경제발전의 큰 방해요인으로 들면서 노동력을 재배치할 것과 여성노동력을 끌어들이고 기능·기술자들을 대거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기관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및 통신을 이용한 성인기술교육체계를 확대 강화하도록 했다.¹⁴⁾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지자, 당은 학교와 기업소 및 공장에도 기술교육체계를 확대했고, 중공업성, 경공업성을 비롯한 각 성 및 국에서 각종 기술전문학교 및 단기기술원 양성소를 설치해 기술자 확보에 나섰다.¹⁵⁾

북한은 전쟁이 끝난 후 재건사업과 함께 시작된 여러 차례의 경제계획의 실천과정에서 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자 1953년 내각회의에서 ‘경제복구에 필요한 과학기술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전문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그 결과 1953~1954년 두 해 동안 9개교의 기술전문학교와 33개교의 야간 전문학교가 문을 열었고, 기술전문학교와 대학생 수를 162%와 123%로 증가시킬 계획도 수립했다.¹⁶⁾

13) 윤계월, “북한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1989), 57쪽.

14)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627쪽.

15)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145~146쪽.

이어 1953년 8월 4일 소집한 내각회의(결정 129호)에서는 전후 기술인재에 대한 요구에 맞게 기술·기능공 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전문학교, 직공학교, 직장노동자학교, 기능·견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¹⁷⁾

북한 정권 초기의 기술교육 향상 및 기능·기술자 양성정책으로 1954년에는 각종 기술전문학교¹⁸⁾가 57개교로, 1955년 초에는 직공학교가 18개교, 노동자학교가 63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교육기관들은 중공업성, 화학 건재공업성, 경공업성, 교통성, 체신성, 전기성 등 14개성의 관리를 받았다.

이후에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들은 계속되었다. 195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기수·기능공의 수요 및 현재의 양성 수요를 계산하여 기수·기능공 양성사업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기수·기능공 양성에서 지나친 전문별, 세분화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히 통합·개편하고, 기업소에서 기술교육을 직접 담당하여 생산과 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했다.¹⁹⁾

같은 해 3월, 최고인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는 전후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를 논의한 자리에서 각 분야의 기수·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 학제개편도 승인했다.²⁰⁾

북한의 기술교육은 전쟁 유자녀 및 고아들을 양육하는 데서도 예

16) 위의 책, 177쪽.

17) 강근조, 『조선교육사』, 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89쪽.

18) 1955년 8월 현재 기술전문학교 17부문: 광산, 금속, 전기, 기계, 화학 건재, 경공업, 건설, 운수, 농업, 보건, 수산, 임업, 산림, 체신, 경제, 기상, 예술.

19)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194~195쪽.

20) 위의 책, 186쪽.

의가 아니었다. 이들은 인민학교 과정인 초등학원을 졸업한 뒤 유자녀혁명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았으며, 만 14세를 초과하면 주로 직공학교와 노동자학교에서 기수·기능공으로 양성되었다.²¹⁾

1955년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인민학교 졸업생들에게 초급중학교 1학년 과목을 학습시키고, 초급중학교 졸업생들에게는 생산을 위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켰다. 게다가 인민학교와 초중학교에 보습반을 개설하도록 했는데, 그해 10월 초급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술 보습반(1년제)을 설치했다. 이 기술 보습반은 공업 지역에는 공작기계, 화학, 제련, 제철, 방직 등의 공업기술반이, 농촌 지역에는 농산, 축산, 잠업, 농기계, 농업부기 등의 농업기술반이 개설되었는데 1955년에는 학생 수가 2만 6,000여 명에 이르렀다.²²⁾

전후 복구사업에 역점을 둔 ‘인민경제 3개년계획’이 마무리되자, 기술인력 수요는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산업에서도 더욱 늘어났다.

또한 생산과 교육을 연계한 기술교육이 북한 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자 중등교육에서도 기술인재 양성 체계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1956~1957년, 고급중학교의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준기사 양성을 시작으로 광산 및 석탄 공업전문학교와 기계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한 전기·건설, 화학, 운수분야의 2년제 고등기술전문학교 10개교를 세웠던 것이 그 예이다.²³⁾ 이어서 1960년에는 30개의 고등 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고 3,400명의 준기사를 양성할 수 있었다.²⁴⁾

21)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77쪽.

22) 강근조, 『조선교육사』, 4권 93쪽.

23) 1956년 5월 내각결정 제38호 채택.

24) 강근조, 『조선교육사』, 4권, 124쪽.

1955~1956년에는 광산, 보건 및 예술 계통의 기술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기술전문학교의 입학대상자를 초급중학교 졸업생 대신에 고급중학교 졸업생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기술전문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경제복구는 기술전문학교, 및 노동자학교 등의 신설·개편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안, 교수요강, 교과서 개편을 포함한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했다.

1954년 교육성에서 허락한 기술전문학교 농업부문 경지정리과 과정안에 의하면 3년 6개월간의 수업시수 4,106시간 중 일반과목의 수업에는 48.3%가 배정되었고, 기술 관련 과목은 51.7%가 배정되었다. 기술 관련 과목 중에서도 실험 및 기술 관련 세미나는 총 교수 시간의 26.3%에 해당되었다.²⁵⁾

또한 1956년 1월에는 내각결정에 의해 기술전문학교의 학제를 고치고, 일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했으며, 졸업하면 준기사 자격을 갖는 2년제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새로 설립했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1953년에 8,610명에 지나지 않았던 기술인력이 해외 유학생 출신의 증가와 대학 및 전문학교, 그리고 각 직장의 직장학교에서 배출되어 1957년에는 4배로 늘어나 2만 8289명이나 되었다.²⁶⁾

이처럼 기술인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그 수가 부족했고, 그 부족한 기술인력을 어떻게 양성해내느냐가 북한 교육정책의 중요 과제였다.

25)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210쪽.

26)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66쪽.

3.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의 기술교육 중심에서 유일사상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으로

북한의 기술교육에서는 한국전쟁 후 재건 사업과 계획경제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었던 기술인력 양성이 매우 중시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종합기술교육을 도입해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중소 분쟁으로 인한 경제악화로 실습실 설치 및 보관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워져 생산노동 활동과 교육 활동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생산노동활동은 부족했던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 전반적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1958.11~1966)

1957년 제1차 5개년 경제계획과 1961년의 제1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을 아우르며 시행된 7년제 기술의무교육은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편된 단선제 기술교육체계이다.

해방 이후 양성되었던 기능공들의 절대 다수가 전쟁 중 참전으로 희생되어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시급했으나, 당시의 교육체계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53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기수·기능공 양성을 위한 결정을 채택하고 새로운 기술교육체계로 개편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195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 회의에서는 중등의무교육 실시와 함께 기술의무교육제 준비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고 11월 1일부터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로 개편했다.

7년제 기술의무교육은 4년제 인민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를 포

<표 1> 1950년대 중등교육 수업시수 현황

(단위: %)

연도	1953년	1957년	1959년	
구분	초·고급중학교 (6년)	초·고급중학교 (6년)	기술학교(2년), 고등기술학교(2~3년)	고급중학교 (3년)
기술과과 (기술과목 및 실습)	511(7.1)	644(9.4)	3,360(53.6)	270(7.5)
일반지식 교육과목	6,658(92.9)	6,190(90.6)	2,913(46.4)	3,334(92.5)
총계	7,169(100)	6,834(100)	6,273(100)	3,604(100)

자료: 조경아, “산업화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82, 239~240, 243~245쪽의 표를 참고해 재작성.

함하는 학제와 기술교육 중심의 교수내용을 단계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1956년 1월 16일 일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전환하고 1956년 5월 22일에는 중등기술전문학교를 신설한 데 이어 일부 고급중학교를 기술전문학교로 개편했다. 이리하여 1956년에 벌써 10개의 고급중학교가 기술전문학교로 전환되어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난 1960년까지 모두 62개의 고급중학교가 기술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1959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6차 회의에서는 인력양성의 증가에 집중한 ‘인민교육체계의 개편에 대하여’의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에 따라 1960년 9월 고급 중학교정이 폐지된 데 이어 초급중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2년제 기술학교와 2년제 고등기술학교를 개설한 단선제 기술교육체계가 되었고,²⁷⁾ 1960년 고급중학교의 신입생 선발을 중단함에 따라 1961년에는 마침내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완성되었다.

27) 『인민교육 발전 15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84쪽.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 개편 초기에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의 구호로 기능공과 기술자 양성을 강조했다. 이때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을 정책화하여 오전에 정규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생산현장에 동원했다. 1959년 당시 기술학교의 생산실습과목은 790시간으로 전체 수업시수의 약 25.8%, 기술과목의 약 56.4%였으며, 고등기술학교의 전공실습과목은 816시간으로 전체 수업시수의 약 25.4%, 기술 관련 과목의 약 41.6%였다. 이처럼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모두가 실습활동을 기술과목 수업시수의 40~50% 이상을 배정한 것은 부족했던 기술인력을 학교의 생산교육활동으로 충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해방 이후 꾸준히 증가한 생산교육활동 차원의 학생 노동은 실습교육 강화와 함께 생산노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1957년, 초급중학교는 연간 30일, 고급중학교는 연간 40일간으로 증가되는 등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다.

기술학교의 교과목은 일반과목과 기술 및 생산실습 나뉘어 기술교과였다. 기술학과의 특성에 맞는 기술과목은 200~300시간 정도 배정되었고, 생산실습은 1960년 말 기준 1학년이 280여 시간, 2학년이 510여 시간이나 배정되었다. 기술학교 학생들을 과도하게 일반 생산노동에 동원하여 일반교과 이수시간이 고급중학교의 6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생산노동 중시의 교육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1959년 기술교과 중 실습에 편성된 수업시수 비율은 53.6%로 1953년 초·고급중학교의 기술교과 실습에 편성된 수업시수비율 7.1%의 8배보다 크다. 반면에 당시의 고급중학교 기술과목과 실습에 편성된 수업시수의 비율은 7.5%로 1953년의 7.1%와 비슷하다. 그런가하면

<표 2> 각급 기술교육 학교 수 증가 현황

(단위: 개)

연도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합계
1949~1950년	69	-	-	69
1953~1954년	82	-	-	82
1956~1957년	117	-	-	117
1960~1961년	132	855	82	1,069
1963~1964년	-	1,218	466	1,684
1964~1965년	-	1,144	464	1,608
1966~1967년	-	1,297	467	1,764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483쪽.

1959년 일반지식교육 과목에 편성된 수업시수의 비율은 46.4%로 1957년의 90.6%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이 시기 기술교육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는 <표 2>의 『조선중앙연감』에 기록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의 증가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 1961년 중등전문학교를 포함한 각급 기술교육 학교 수는 1,069개교로 7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전인 1957년 117개교의 약 9배가 넘었다. 한편, 1961년 기술학교는 855개교로 고등기술학교 82개교에 비해 10배 이상이었다. 1967년 각급 기술학교 수는 1949년의 약 25.5배, 1957년의 약 15배로 증가했다. 1961년과 1967년의 각급 기술학교가 증가한 결과는 7년제 기술의무교육이 기초기술 교육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64년은 고등기술학교가 466개교로 1961년의 약 5.7배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의 기초 기술 위주의 교육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술능력 요구로 기술학교보다는 고등 기술학교 신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표 3> 기수·기사 및 기술 전문가 증가 현황

(단위: 명)

구분	1953.10.10	1957. 9.20	1959.10.1	1960.11.15	1963.10.31	1964.10.31
기사	1,837	5,860	8,837	11,991	95,150	43,544
기수	6,763	22,429	38,615	57,978	32,955	136,250
전문가, 중등전문가	13,272	45,069	46,716	63,497	95,549	113,712
합계	21,872	73,358	94,168	133,466	223,654	293,506

주: 기수는 중등기술전문학교 졸업 정도의 기술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기술자격
을 받은 사람을 일컫음. 기사보다 기술 수준이 한 등급 낮고 기사의 보조자 역할을 함.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483쪽.

기초 기술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었던 북한의 기술교육정책은 경제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교육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양성된 기수·기사 및 기술 전문가의 시기별 수 증가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처럼 단선제 기술교육체제로 완전히 개편한 지 3년이 지난 1964년 배출된 모든 기술전문가들은 29만 3506명으로 1953년의 2만 1872명의 약 13.5배이다. 이들 중 기사는 1953년 1,837명에서 1964년 4만 3544명으로 약 24배 늘었고, 기수는 6,763명에서 13만 6250명으로 약 20배나 증가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했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작은 기업소와 기관에 신설했던 공업, 건설, 운수, 보건, 경제 등의 비농업부문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를 농업부문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로 개편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건설, 운수, 보건, 경제부문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들을 도 소재지와 큰 도시, 노동자 구에 설치하고, 이곳에 노동자, 사무원

자녀들을 입학시켜 기초 기술자 및 고급 기술자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했다.

북한 당국의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기술교원 양성을 위한 노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는 기술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대학에서 현직교원들을 재교육했다. 또한, 기술교원대학을 신설하여 기술교원을 양성하거나 공장, 기업소, 농·목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기술교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2) 전반적 9년제 의무교육제: 유일사상 고취를 위한 정치사상교육 도입(1967~1974)

1960년대 국내외 정치·경제 변화로 자립경제, 중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 자주국방 등의 정책이 강조되면서 기술인력도 양적인 증가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자립경제와 자주국방노선은 북한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군수산업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한 중공업 중심의 산업이 필연적이었으며, 이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주의건설이 진전되면서 단기간에 기초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길러내는 것에 주력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²⁸⁾ 이런 상황전개에 따라 기술의무 교육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져, 전반적인 9년제 교육체계가 시행되었다. 9년제 의무교육은 1961년 시작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 중·후반과 1971년 시작한 6개년 경제계획 4년차(1974년)까지에 걸쳐 시행되었다.

2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6~1967), 229쪽.

9년제 의무교육제는 1965년 8월 3일 내각회의에서의 논의와 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의 법령 선포로 시행되었다. 9년제 의무교육은 먼저 2년제 기술학교와 3년제 초급중학교를 통합해 5년제 중학교로 만들고, 1967년 4월부터는 4년제 인민학교와 5년제 중학교를 연결한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학령이 7세부터 16세까지였던 9년제 의무교육은 교육을 마친 15세와 노동 가능 연령인 17세 사이에 발생했던 2년의 간극 때문에 또다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만 했던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 시기 5년제 중학교는 중등일반지식교육과 기초기술 교육을 모두 다룬 의무교육기관으로 혁명전통교양과 결부시킨 공산주의교육으로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충성하도록 했다.²⁹⁾ 이에 따라 교육강령에서는 기초 기술교육 생산실습교육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과목의 수준을 높임과³⁰⁾ 동시에 당 정책을 매시간 수업 제일 앞부분에서 다루도록 했다. 또한 교수·교양에서는 김일성의 노작과 혁명전통 수업시간을 점차로 늘려나갔다.

9년제 의무교육제는 유일사상고취를 위한 정치사상교육을³¹⁾ 처음으로 시도한 시기이다. 9년제 의무교육제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학교에서의 정치사상교육은 사회주의교육과 공산주의도덕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1947년 10월 개교한 만경대혁명학원에서는 항일 빨치산 출신들이 직접 김일성과 함께한 그들의 항일투쟁 경험을 원

29) 위의 책, 228쪽.

30) 강근조, 『조선교육사』, 4권, 271~278쪽.

31)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으로 북한 정권수립과 함께 실시했던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교육을 위한 정치사상교육과는 구별한다.

아들에게 들려주었다.³²⁾ 그 당시 들려주었던 항일투쟁 관련 내용들은 이후 혁명전통교양 교육의 모범이 되어 북한 학생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혁명전통교양을 위한 정치사상교육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9년제 의무교육에서의 정치사상교육 강조는 1960년 발표한 10대 정강과 그해 4월 전국교원대회의 연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전국교원대회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당 정책교양과 공산주의 교양,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김일성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이라 규정했다.³³⁾ 이에 따라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는 공산주의 교양학과를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범대학에서는 당정책사학과를 신설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당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교육자들에게 학생들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하도록 교수·교양을 당 정책화할 것을 지시했다.³⁴⁾ 이에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혁명 역사와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도록 했고 ‘김일성 혁명 역사연구실’을 신설했다. 이로써 당은 모든 교육기관을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했다.³⁵⁾

1968년까지만 해도 기술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사상과목을

32)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 18쪽. 만경대혁명학원은 항일투쟁으로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부상당한 아이들을 모아 양육하고 교육시켰던 기숙형태의 특수 학교이다.

33)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8), 180~181쪽.

34) 강근조, 『조선교육사』, 4권, 280~281쪽.

35)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8), 266쪽.

<표 4> 중학교 기술교육 및 정치사상교육 수업시수 (단위: %)

구분	1953년	1957년	1959년	1962년	1972년
학교급 (기간)	초·고급중학교 (6년)	초·고급중학교 (6년)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5~6년)	공업학교 (2년)	초·고급중학교 (6년)
기술과목 및 실습	511(7.2)	644(9.4)	3,360(53.6)	812(34.3)	546(8.2)
정치사상과목	-	-	-	-	676(10.2)
일반과목	6,658(92.8)	6,190(90.6)	2,913(46.4)	1962(65.7)	5,404(81.6)
총계	7,169(100)	6,834(100)	6,273(100)	2,368(100)	6,626(100)

자료: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82, 239~240, 243~245쪽;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142쪽.

추가하는 방식의 부분적인 개정을 했으나, 정치사상교육의 비중은 나날이 늘었다. 중학교에서는 ‘현행 당정책’, ‘위대한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의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혁명전통 교양과 충실성 교육을 했다. 1969년에는 학생들이 김일성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갖도록 당 정책이 모든 교수내용에 포함되기도 했다.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2년을 포함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과목과 기술과목 및 실습이 교육내용의 대부분이었다. 특히 1959년에는 기술과목 및 실습 비중이 53.6%나 되었다. 반면에 1972년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과목 및 실습시간이 1962년에 비해 약 25%로 축소되었고, 유일사상 관련 정치사상 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의 비중이 교육과정 전체의 10.2%였다.

이와 같은 9년제 의무교육제의 유일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육 관련 학과목 편성과 수업시수 비중 확대는 북한 교육이 기

술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되었고, 해방 후 기술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던 교육과정과 학교시설이 정치사상교육에 적합하도록 보완, 개편되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활용되었다.

4. 나가며

북한 정권 수립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기술교육은 식민지경제 잔재극복과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재건을 위한 기술인력 공급이 주요 목적이었다. 중·소 분쟁 등 국내의 상황 속에 선택한 ‘국방-경제 병진노선’은 국방예산의 과다지출과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정책을 수반했다. 이에 따라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은 당초보다 3년이 늦어진 1970년에서야 마무리 되는 등 경제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어 1971년 시작된 6개년 경제계획도 지지부진해지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구호를 내세워 사상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성 향상과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6개년 경제개혁도 결과가 그리 신통치는 않았다. 북한은 6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전 인민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받았으며 공업도 주체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제수지 악화와 과도한 군사비 지출(국가예산의 30% 차지)로 경제건설은 발목이 잡혔다.

7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정권수립 이후 강조되어왔던 기술교육 위주의 교육개편이었다면 1967년 시작된 9년제 의무교육제는 기술교육보다는 유일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했다. 이 유일사상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통해 북한 학생들과 주민들을 유일지배체제의 지도이념에 순응하도록 하는 데 중요했다. 또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치사상교육의 수준과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당 정책교육은 중·소 분쟁으로 인한 북한과 소련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소련의 경제지원 중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중공업 중심의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식을 개조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은 1975년 9월부터 시작된 11년제 의무교육 시기에 더욱 공고해졌다. 이는 관련 교과목과 수업시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 주체사상이 등장한 이후 교원들도 정치 실무적 자질을 제고하도록 정치사상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유일사상을 강조한 정치사상교육이 등장하고 10년이 되던 해인 1977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정치사상 교양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³⁶⁾며 모든 교육의 우선이 정치사상교육임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오늘날에도 북한 교육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지도지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1983년,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강조하고 과학자와 기술자,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도록 과학기술교육을³⁷⁾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사상교육적 수업시수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중등학교에서는 765시간으로 전체 수업시수의 10% 이상을 배정한 것으로 보아 교육의 우선이 정치사상

36)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건노동당출판사, 1986), 383쪽.

37) 북한의 기술교육은 1980년대 중반에 과학기술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컴퓨터기술교육으로 이어졌다.

교육이었음이 입증된다. 또한 1996년 초·고급중학교 6년 동안의 정치사상교육이 12.5%로 확대되고, 기술교육은 4.2%³⁸⁾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로도, 정치사상교육이 더욱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사상교육은 과목 및 수업시수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김일성 혁명역사 연구실’ 등의 신설로도 이어졌다. 기술교육에 들어가던 예산, 즉 실습교육장 등의 시설설치 및 보수를 위한 교육재정을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사상교육 공고화에 활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불안한 국제정세와 거둬드는 경제정책 실패 속에 기술인력의 수요가 급감하자 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했던 학교교육에 변화가 필요했던 데다가, 김일성 단일체제로의 정치권력 변동이후 절대적인 체제안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9년제 의무교육제에서의 유일사상 중심의 정치사상교육을 위한 학과목 편성과 수업시수 비중 확대는 북한 교육이 기술교육에서 정치사상교육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이 정치사상교육에 적합하도록 보완, 개편되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접수: 10월 30일 / 수정: 11월 15일 / 채택: 12월 10일

38)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161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저작집』, 제32권(평양: 조건노동당출판사, 1986).
- 강근조, 『조선교육사』, 제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_____, 『조선교육사』, 제5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김창성·리준항, 『3대혁명소조운동과 그 위대한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리남산, 『쏘련의 교육 사업을 참관하고서』(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7).
-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인민교육 발전 15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60).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1).
- _____,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 _____,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5).
- 『해방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5).

2) 신문

-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1면.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7).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서울: 문맥사, 1990).
- 김광운, 『북한의 정치사 연구』(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3).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서울: 교육과학사, 1997).

2) 논문

김옥자, “만경대혁명학원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지수, “북한 기술의무교육제 실시과정에 관한 연구-급진적 사회주의 교육개혁의 좌절과 변형,” 『북한 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2006).

윤계월, “북한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1989).

조정아, “산업화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03).

The Shift of Paradigm of North Korea's Education

Kim, Oug Ja(Seoul Apgujong Elementary School)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focused on technical educ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government. However, the country suffered severe shortage of manpower, making it difficult to overcome the aftermath of exploit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constructing its economy based on socialism. Due to these difficulties, the party concentrated on educating basic technology, soon expanding its range to more people while reorganizing the education system for efficiency.

The plan further developed as the country proceeded on with its restoration works and planned economy after the Korean War, thus reforming linear technology education system among North Korea. During the 60s,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such as the Sino-Soviet split and the Gapsanpa scandal, allowed the country to concentrate on its war industry while establishing a self-supporting

economy and a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policy. This strengthened the dictatorship of North Korea overall. As a result, the school curriculum was reorganized during the late 60s to 70s to emphasize political ideas rather than educating technology.

This study followed the process of technical education which started from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mparing the placement of subjects between the 7-year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system and the secondary curriculum of the 9-year compulsory education, clarifying the transfer of emphasis from technical education to ideology education.

Keywords: compulsory technical education system, linear technology educ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sole superintendence regime, sole and exclusive idea